

## 1982년 '우순경 총기 난사사건' 소설화 비극적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 병폐 그려



개와 늑대의 시간

김경욱 지음

이상문학상, 김승옥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굵직한 문학상을 수상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 김경욱이 일곱 번째 장편소설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작가는 지난 1982년 4월 하룻밤 사이 56명이 살해당한 '우 순경 총기 난사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장기 미제 사건을 파고드는 프로파일러처럼 비극의 진실을 추적해나가는 작가는 시종일관 사실성과 개연성을 절묘하게 엮어낸다.

이 사건을 탐색하는 작가의 시선은 지극히 피해자 중심이다. 사건의 특성상 잔혹하고 자극적으로 서사화할 수 있지만 작가는 오히려 당시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집중한다.

타인의 아픔에 민감한 공감능력을 지녔던 박만길, 모든 것이 무협이 세계로 보이는 철없고 꿈 많은 소년 손영기 등 어느 날

갑자기 미완으로 남겨 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피해자 56명이 단순히 숫자로만 환원될 수 없는, 다시 말해 한 명 한 명이 꿈꿔왔던 우주가 사라진 비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묻는다. 미친 호랑이처럼 사람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황순경만이 유일한 도살자이자 가해자였을까. 결재 라인만 따지며 나서길 주저했던 군청 직원들, 살인자가 마을을 휘젓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송은커녕 숨어버린 면장, 온전 접대를 받다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뒤 참호를 파고 들어왔은 지사장 등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겹치는 병폐가 소설 곳곳에 드러난다.

작가는 가장 잔인했던 것은 구조를 요청한 이들을 외면한 시스템 일대면, 타성에 젖은 관료제, 무사안일주의, 권위주의의 문화 등은 아니었는가라고 질문한다.

무엇보다 작가는 비극적 사건 이면에 존재했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특유의 위트 넘치는 문장으로 풀어낸다. 유머와 애도도 양립할 수 있음을 김경욱만의 소설적 방법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사건을 잊지 않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찾는 데서 '개와 늑대의 시간'은 의미를 갖는다.

〈문학기자서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종교가 돼버린 현대과학 정면 비판



과학의 망상

루퍼트 셸드레이크 지음

오늘의 정점에 다다른 현대 과학기술은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이다. 과학이 거둔 승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론편이 없어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가 돼버린 과학을 오랜 시간 정면으로 비판해온 과학자가 있다.

영국의 저명학 생물학자이자 과학철학자인 루퍼트 셸드레이크는 '과학의 망상'을 통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론적으로 해결됐다고 여기는 과학의 태도를 비판한다. 저자는 현대 과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10가지 도그마를 설득력 있게 검증한다.

무엇보다 셸드레이크 교수는 현대과학이 영원불변하다고 믿는 열 가지 확신을 의문으로 바꾼다. 정신은 뇌 안에 있으며 뇌의 작용 그 이상도 아닌가? 초자연적인 현상은 환각에 불과한가? 기계적 의학만이 효과가 있는 유일한 치료법인가?

이 같은 질문은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한 통념을 숙고하게 한다. 또한 저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사상의 변천과정과 문제들, 주요 사상가들의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을 쉽게 풀어낸다. 특히 리처드 도킨스처럼 현대 과학의 슈퍼스타와 다름없는 이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비판하며 균형잡힌 지식을 제시한다.

"이 책은 과학을 위해 쓰인 것이다. 나는 과학이 덜 독단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었으면 한다. 나는 과학이 자신을 옹호하고 있는 독단에서 벗어날 때, 과학이 다시 태어나리라고 믿는다." 〈김영사·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르네상스~현대 회계로 본 번영과 몰락의 세계사

###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

제이컵 솔 지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은 국가의 자산을 추적하고 정치를 관리하기 위해 회계에 의존해왔다. 도로를 건설하든, 전쟁을 하든, 공장을 건설하든 회계는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였다.

회계는 책임을 묻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다. 역대의 금융위기는 잘못된 회계가 어떻게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회계가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는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일천하다.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회계의 역사를 조명할 책이 나왔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서 회계학과 역사학을 가르치는 제이컵 솔이 펴낸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는 인류 역사에서 회계가 끼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저자는 회계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고대 로마시대부터 현대에 걸쳐 풀어내는 이야기는 생생하면서도 혁신적이다. 역사 속 인물들이 회계의 역사와 어떻게 얽혀있는지 한편의 드라마

마로 펼쳐진다.

15세기 피렌치의 메디치는 복식부기를 통해 은행업에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 그러나 회계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화정 쇠퇴에 일조하게 된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 전제군주들은 정확한 부기가 지출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정직한 회계를 피했다. 그로 인해 루이 16세의 재무총감 네케르가 왕실의 장부를 공개했을 때 대중은 폭발하고 만다.

고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개인적 회계를 바탕으로 '업적록'을 썼다. 로마는 각 가정에 가계부를 기록하게 했고 이를 세리들이 감사했다. 그럼에도 국가 회계는 일관성이 결여돼 있었고 기만행위가 만연했다.

1300년 무렵 토스카나와 이탈리아 북부에서 등장했다고 알려진 복식부기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필수도구다. 행정부를 심판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대차 균형' 개념도 도입됐다. 16세기 이탈리아 도시공화정이 쇠락하고 거대한 절대군주제가 등장하자 회계의 관심은 희미해졌다. 스위스와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복식부기 회계는 사라졌다.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펠리페 2세와 프랑스 루이 14세는 회계에 관심을 가졌지만 14세기 북이탈리아 공화정만큼 시스템화되지 못했다.

19세 선거제 정부가 등장한 영국에서는 부패와 무책임이 만연했다. 재무 책임성 메커니즘을 설계한 초기의 미국도 재정 스캔들로 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재무 책임성을 달성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제이컵 솔은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에서 회계가 끼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메멘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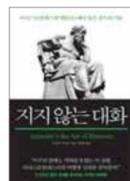
책임성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대에도 회계부정은 빈번히 발생했다. 권력과 억압의 도구로 회계가 이용됐다. 루이 14세의 재무총감 장바티스트 콜베르는 정적인 니콜라 푸케를 제거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압수해 반역 혐의를 씌웠다.

회계가 복잡해지면서 사기의 가능성 또한 복잡해졌다. 1950년대 전후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회계감사 법인들 경쟁이 치열해졌다. 회계법인은 독립된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컨설팅 수수료를 위해 스스로 독립성의 기준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회계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규제자들과 감사관들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미로처럼 복잡한 숫자, 재무 대수, 부채담보부증권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는 번영하고, 몰락하는가? 저자는 상업 지식에 대한 존중이 있고, 실용적인 수학이 인문주의와 결합한 국가가 번영했다는 관점을 취한다. 피렌체와 제노바 같은 도시공화정과 황금기의 네덜란드 등이 그러한 사례다. 이들은 회계를 교육 과정의 하나로 종교와 도덕, 예술, 철학, 정치에 통합시켰다. 즉 회계를 문화의 일부로 활용하고 이를 녹여내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성공적인 사회는 회계와 상거래 문화가 풍부한 사회일 뿐 아니라, 회계를 무시하고 날조하고 등한시하는 인간의 습성에 대처하기 위해 견고한 도덕적, 문화적 틀을 구축하는 데 노력한 사회다." <메멘토·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인류 최고 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려주는 '변론술'



지지 않는 대화

다카하시 겐타로 지음

올해는 '만학의 시조'로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탄생 2400주년이 되는 해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하는 첨단과학의 시대에 2000년도 더 이전에 생존했던 철학자를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는 수준의 형이상학, 논리

학, 윤리학, 자연철학 등 거의 모든 학문의 기초를 세운 최고의 학자라 할 수 있다. 그가 끼친 영향 가운데 일반 대중들의 피부에 와 닿을 분야는 아마도 '수사학'일 터이다. 그 가운데 '변론술'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화법에 관한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저술가인 다카하시 겐타로가 펴낸 '지지 않는 대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변론술을 다루고 있다. 설득 내용의 논리성뿐 아니라 듣는 이의 감정 및 말하는 사람의 인성 등 설득 과정에서 필요한 감정적인 부분까지 아우른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학자가 알려주는 정수라 할 수 있다. <라이스 메이커·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독서모임' 꿈을 현실화하는 인생 반전 스토리



대한민국 독서혁명

강규형 지음

'나'로부터 '비'로되는 변화의 의미를 품은 독서포럼 '나비'는 시간관리·자기개발 전문가인 강규형 (K3P자기경영연구원 대표)가 만든 국내 최대의 자발적 독서 모임이다. 현재 전국에서 200여개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나비'는 홀로하는 독서에서 벗어나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이른바

'떼독서'를 지향한다. 강규형 대표가 최근 펴낸 '대한민국 독서혁명'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 더할 수 없는 역경에 빠진 인물들이 '나비'를 통해 희망을 되찾고 꿈을 키워 마침내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책은 '떼독서'의 위력과 더불어 꿈을 현실화하는 인생 반전의 리얼 스토리, 즉 자영업자·대학생·직장인·가족·군인·전업주부의 성장 사례 여섯 가지를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책 말미에는 별도의 팀 페이지를 활애해 '독서포럼나비'와 독서·토론 관련 핵심 정보를 담았다. <다연·1만4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